



발행인: 조화순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홈페이지: <http://democracy3.0.yonsei.ac.kr>

ISSN 2586-3525(Online)

빅데이터와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이재목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년 WEF 직후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은 트렌드 이슈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높아진 건 몇 달 후 벌어진 이세돌-알파고 대국 때문이었다. 역사상 최초의 인간-인공지능 간 공식 대국이라는 것과는 별도로, 알파고 대국은 한국 땅에서 우리 기사가 대표로 나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 민족주의적 코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인공지능의 현실성을 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쩌면 60년대 자국의 우주인들이 찍어 보낸 지구 사진을 통해 세계관의 일대 전환을 경험한 서구의 경험에 비견할만 했다.

그러나 60년대 지구 사진이 인간과 신을 객관화시킨 생태주의적 각성을 가져왔던 것처럼, 알파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이 기술을 통한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천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키워드만 바뀌었을 뿐, 언론의 관련 헤드라인은 여전히 미래먹거리, 일자리 창출, 선진국 진입이고, 어른들의 관심은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입시 교육에 매몰되어 있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가져다 쓰지 않아도, 혁신적 스마트폰,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 빅데이터, 창조 경제 같은 키워드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환기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IMF 사태 이후 내내 끌어 안고 온 과거형 문제들이다. 국가가 경제적 도약을 약속하면, 국민이 일치단결 호응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시나리오는 어찌된 일인지 21세기 정부들에서 더 심해진 느낌이다. 누군가의 성공이 경쟁자들에게는 실패가 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이해하는 대신, 극단적으로 근면하고 몰입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적 입시 윤리"가 여전히 팽배하다.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 분화, 기회의 불균등, 인간 중심성의 철폐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 전체가 실패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빅데이터 시대의 어두운 면과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출간되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캐시 오닐(Cathy O'Neil)의 『대량 살상 수학 무기 Weapons of Math Destruction』가 던져준 물음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량 정보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우리도 모르게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둘러 싸여 살고 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 보험회사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은 그들이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배경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등급을 평가하고, 나아가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등급에 따라 구축하기도 한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개인정보와 등급 기반의 빅데이터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수학 기반의 대형 예측모형과 결합되어 우리와 유사한 인종, 학력, 출신지 또는 신용정보나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평가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오늘날 정부, 기업, 사회에 도입된 이러한 대량 정보 중심의 알고리즘 모형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키워 온 오만과 편견 그리고 차별을 데이터와 과학의 이름으로 코드화해 기존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존재한다. 알고리즘의 중요한 목적은 도덕적 가치 판단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과거의 경험을 통한 미래의 예측일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역감정, 인종차별,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량 데이터 기반의 평가체계는 결국 기존 편향성의 확장과 피해의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은 바야흐로 감당할 수 없이 수많은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앞으로 어떤 신세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보다 열심히 고민해봐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다.